

보험용어

• 신가보험 (replacement value insurance)

손해보험중 재산보험에서는 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시가이상으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즉 손해발생시 신고교환공제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를 하지 않고 신조달가액을 보상하는 것을 신가보험이라고 하며 시가보험에 대한 상대개념이다.

국내에서도 화재보험의 특약으로서 모든 재산보험에서 신가보험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계보험에서는 일부손일 때 당연히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신가보험에서의 보상방법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신조달가액과 시가와와 차이만을 보상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가를 포함한 신조달가액의 전부를 보상하는 방법인데 후자의 방법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 가라규정

공장물건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공장의 구외로부터의 연소위험은 가미되어 있지 않으나, 구내의 건물간의 연소위험은 요율적용상 고려되고 있다. 이는 대면하는 건물에 이어 각각의 건물자체의 요율을 건물의 구조와 거리에 따라 수정계수를 써서 수정하는 것이다.

• 간접손실 (loss not proximately caused)

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화재가 발생해 혼란해진 동안 도난이 생겨도 이 도난이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간접손해가 된다. 이것이 간접손해 본래의 의미지만 어떤 경우엔 부보대상이 되어있지 않은 피보험이익이 생기게 한 손해를 간접손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의 손해를 결과적 손해라고 한다. 일례로 화재로 인한 냉동기의 고장으로 냉동물이 부패된 경우가 결과적 손해에 해당되며 이러한 피해는 특약에 의해 보상하게 된다.

• 동산합중

화재보험의 할증요율의 일종으로서 보통물건, 공장물건에 공히 규정되어 있다. 화재의 경우 동산의 손해정도는 수용건물의 구조, 화재의 규모, 포장, 수용장소 및 수용량, 소방력 등의 상황에 의해 차이가 나지만 동산자체의 손상성에 의한 경우도 크다. 손상성은 직접적 결과로서의 연소와 간접적 결과로서의 연기손, 수손, 습기, 습도의 변화, 변질, 파손, 오염손에 의한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손상성의 감소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 이 할

증으로서 야적의 동산, 석탄, 피상의 금속물, 선철류 및 건축중인 건물내에 수용된 당해 건축재료와 자가용의 가재, 가구, 의류, 집기, 비품, 기계, 공구류, 설비 및 장치류에는 부가하지 않는다.

• 고지의무자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가 이 의무를 부담한다. 또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의 위반여부는 대리인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배서약관 (avenant)

보험계약 체결후 달라진 사실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의무에 따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할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위험의 개정, 변경, 증가의 자료가 될 사실은 원칙상 보험자 자신이 조사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 보험자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이를 통지토록 한 것이다.

방재용어

- 절연저항

(insulation resistance)

절연된 도체와 대지와의 사이에서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저항을 말한다. 절연 정도의 양부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통상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는 $0.1M\Omega$, 150V 초과 400V 이하는 $0.2M\Omega$, 400V 초과하는 것은 $0.4M\Omega$ 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법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기준을 보면 P형 수신기와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0.1M\Omega$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산화(oxidation)

본래는 순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것을 말하나 일반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전자를 뺏기는 변화 또는 이것에 수반되는 화학반응을 말할 때가 많다.

불 혹은 연소라 함은 열과 빛을 발생하는 급격한 산화반응이라 할 수 있으며 산화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과 산화제가 있어야 한다.

- 석면(asbestos)

섬유상의 광물을 솜과 같이 부드럽게 한 것. 주로 사문암의 일종인 크리소타일이며 녹색을 띤다. 섬유상을 가지고 있고 견사광택이

현저하고 사문암 중의 균열면에서 산출된다. 주로 보온용이나 내화재료에 이용된다.

- 암면(rock wool)

현무암, 현산암과 같은 화성암을 용해하여 공기 또는 공기와 수증기로 불어 날려서 섬유상으로 한 것. 유리질이며 부서지기 쉽다. 가볍게 가압하여 판상으로 한 것은 단열재나 흡음로 이용된다.

- 비등(ebullition, boiling)

일정한 압력하에서 액체가 어떤 일정온도에 도달하면 액체 표면에서의 증발외에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 액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화현상을 비등이라 한다.

- 분진폭발(dust explosion)

공기나 기타의 산화성 기체 중에 고체의 미소한 분말이 부유하고, 그 농도가 적당한 범위 내에 있을 때 불꽃, 스파크, 섬광 등의 화원에서 에너지가 주어지면 연소과정에서 심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휘발분을 함유하는 석탄 미분말 외에도 밀가루, 설탕, 곡물, 폴리에틸렌, 페놀수지 등 플라스틱의 미분으로부터 알루미늄, 마그네슘, 지르코늄, 규소, 철분에 이르기까지 $1\sim 100\mu m$ 정도의 미분이 비상할 때는 위험하다.

- 건조제(desiccating agent)

기체속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염화칼슘, 날알모양의 소오다석회, 봉상의 수산화나트륨, 농황산, 과염소산마그네슘, 5산화인 등이며 실리카겔도 사용된다. 기체가 산성이면 산성, 염기성이면 염기성의 건조제를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열전대(thermocouple)

열기전력을 이용하는 온도계. 두 종류의 금속선의 양단을 접합하여 한쪽의 접점을 정온상태로 유지하고 다른 쪽의 접점온도를 변화시켜 열기전력의 측정치에서 온도를 구하는 열전온도계로서 사용된다. 백금-백금로듐의 PR열전대 중에서 르·샤를리에열전대라고 하는 것은 국제실용온도 눈금의 표준온도계로 사용된다. 조성이 약간 다른 PR열전대와 크로멜-알메르의 CA열전대는 상온 이상에서, 구리-콘소탄탄의 CC열전대는 상온 이하의 측정에 쓰인다. 한편 철-콘스탄탄의 IC열전대는 $-200\sim 800^{\circ}C$, 백금로듐의 Pt60%Rh40%-Pt80%Rh20% 짝은 $2000^{\circ}C$ 까지, 텅스텐-텅스텐·몰리브덴은 $2600^{\circ}C$ 까지, 금-은, 백금-양은, 금-양은 등은 저온용으로 쓰인다. 특히, 비스무트-안티몬은 열기전력이 크다. (㉞)